

중량변화에 의한 폴리에스터 레이온 부직포의 정전기 대전 완화특성

이성일¹, 박용순^{1,a}

¹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

Electrostatic Electrification Relaxation Properties of Polyester Rayon Non-woven Fabric due to Weight Variation

Sung-Ill Lee¹ and Yong-Soon Park^{1,a}

¹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, Chungju National University, Chungju 380-702, Korea

(Received October 26, 2011; Revised November 9, 2011; Accepted November 14, 2011)

Abstract: Non-wovens polyester rayon samples were manufactured, and the electrification properties of electrostatics were measured for three different samples (15 g/m^2 , 25 g/m^2 , and 40 g/m^2) with the environmental settings of temperature ($20\sim40^\circ\text{C}$) and humidity ($40\sim90\%$).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. Heavy sample generated more static electricity when the temperature was constant. The static electricity decreased slowly when the humidity is less than 70%, while it sharply decreased over 70% humidity condition. For non-woven polyester rayon, static charge decreased as temperature and humidity increased. As the weight increased, less time were taken for the electrification voltage to drop to the half.

Keywords: Non-wovens polyester rayon, Electrostatics, Electrification voltage

1. 서 론

최근 산업현장에서 고기능성 재료인 합성 부직포의 인공피혁, 자동차 내장재, 전기전자 용도의 2차 전지 격리막 (separator), 케이블 랩 (cable wrap)과 같이 각종 시트와 경계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점증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, 제조 공정 시 정전기의 발생과 더불어 장·재해가 더더욱 증가일로에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 및 우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도 정전기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[1,2].

우리나라에서 소프트 (soft)/포리스 (porous)한 재료인 부직포 (non-wovens fabric)는 “방적, 제작, 편성”에 의한 공정 없이 섬유 집합체를 화학적 작용 (접

착제를 섬유에 혼용)이나 기계적 작용 또는 적당한 수분과 열처리에 의해 전선 상호간을 결합한 포 (布)의 형상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, 일반적으로 공기를 잘 통하며 유연하고 가벼워서 심지, 벽지,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. 습도, 온도, 물질의 물성 특성, 표면 상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정전기 대전특성이 달리 나타나는데 정전기는 재현성이 어려우며, 과학적으로 증명도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제어가 되지 않으면 화재 및 폭발, 생산 장·재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[3,4]. 필름, 종이 부직포 등 각종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공정에서는 정전기의 흡인과 반발 작용에 의해 먼지가 부착되어 장·재해의 원인되며, 품질도 저하시키게 된다.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정전기로 인하여 정전기의 역학적 작용, 유도 및 방전 등의 정전기 현상에 의해

a. Corresponding author; dyddl0111@hanmail.net

화재 및 폭발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[5,6]. 특히 최근에 정전기 방전에 의한 컴퓨터 오동작과 같은 재해는 하이테크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, 정전기의 방전 시 노이즈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 암페어 정도의 방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방전이 인체에 흐르게 되면 전기적 충격 등으로 피부가 파괴되거나 쇼크로 추락 등의 2차적 재해가 발생된다 [7-9].

본 논문에서는 이것은 파이버 (fiber: viscose rayon + polyester)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web (편물, 직포(織布))를 형성하는 침적 접착 법을 사용하여 폴리에스터 레이온 합성 부직포 시료를 제작하여 온도 20~40°C, 습도 40~90%의 환경 범위에서 중량이 15 g/m², 25 g/m² 및 40 g/m²인 세 종류 시료에 10 kV의 전압을 인가하여 정전기 대전 특성을 측정하였으며, 온도, 온도, 중량 등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.

2. 실험 방법

2.1 측정시료 및 장치

본 실험에서는 파이버 (fiber: viscose rayon 40% + polyester 60%)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web(편물, 직포(織布))를 형성하는 침적 접착 법을 사용하여 중량이 15 g/m², 25 g/m² 및 40 g/m²인 세 종류의 폴리에스터 레이온 합성 부직포 시료를 제작하여 측정하였다.

정전기를 발생시켜 주는 직류 코로나 방전식의 chopper형이며 D.C(±, 0~10 kV)의 가변형인 Static Honestmeter (일본:Shishido 정전기(type H-0110), 분석용으로 Honest Analyzer (일본:Shishido 정전기(type V1), Thermal printer (일본:DPU-411, 열감지식 Seriai Dot 방식) 및 항온항습장치를 사용하였다.

2.2 측정회로 및 방법

시료를 항온·항습 계에 넣고 그림 1과 같은 회로에서 온도 15~40°C까지 5°C씩 상승시키면서, 습도는 40~90%까지 5%씩 상승시켜가면서 1분 동안 정전기 대전전압을 측정했다. 그림 2에 시료를 코로나 방전에 의해 임의로 대전시키는 구동기, 코로나를 발생시키기 위한 고압직류 전원, 소자를 위에 놓고 회전시키는 턴테이블 및 모터, 시료의 전위를 꼬집하는 수신기와 증폭기, 또 완화되는 전하로부터 반감기를 측정하는 analyzer가 부착, 이를 조작하는 조작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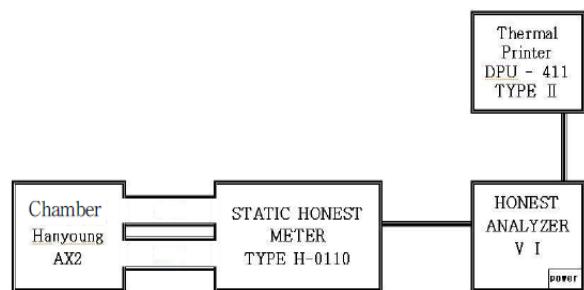


Fig. 1. Experimental setup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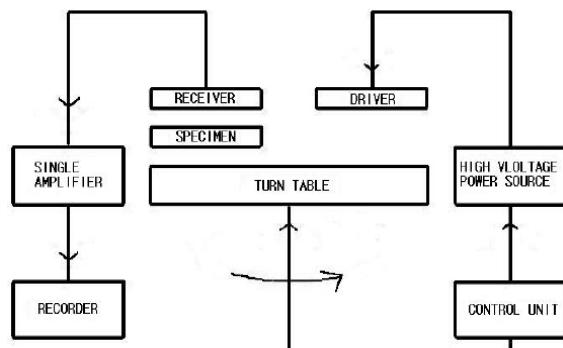


Fig. 2. A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structure of static honestmeter.

Static Honestmeter의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턴테이블 (turn table)을 1,550 rpm의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시료에 10 kV의 전압의 인가로 20 mm 간격의 시료에 대전되는 대전전압이 3 kV이고 0.1×3.5×4.5 mm인 시료를 장착한 후 온도를 10~40°C, 습도 40~90%의 환경에서 10 kV의 직류고전압을 코로나 방전 형으로 인가시켜 그 겹출치가 포화치 (saturation level)에 도달한 후 고압인가를 차단시키고 그 후 60 sec 동안 시료 표면상의 전위 감쇠상태를 연속적으로 측정했다.

3. 결과 및 고찰

3.1 습도의 영향

그림 3~5는 온도 20°C~40°C, 습도 40%~90%에서 중량이 15 g/m², 20 g/m² 및 40 g/m²인 폴리에스터 레이온 합성 부직포 시료에 10 kV의 직류 고전압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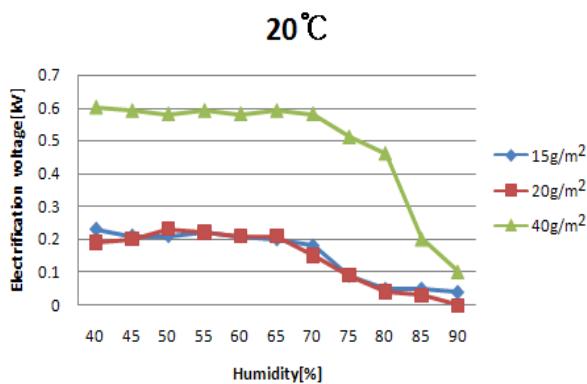


Fig. 3. Electrostatic electrification voltage due to transition of humidity in non-wovens sample of polyester rayon, 20°C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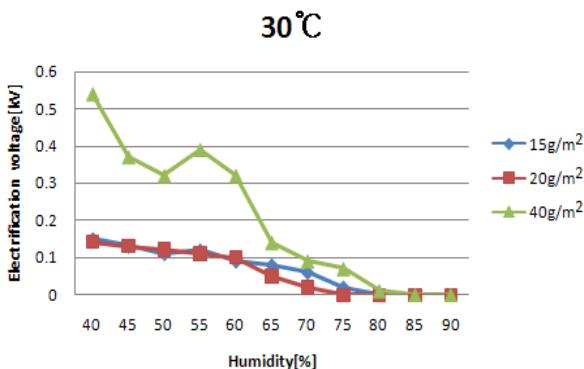


Fig. 4. Electrostatic electrification voltage due to transition of humidity in non-wovens sample of polyester rayon, 30°C.

코로나 방전형으로 인가하여 정전기 대전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다. 그림 3은 온도 20°C에서 습도 변화의 조건에서 정전기 대전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다.

중량이 15 g/m²와 20 g/m²인 시료의 정전기 대전 특성 결과는 습도가 40%~70%까지의 대전 전압은 0.2~0.23 kV 정도로 크기가 거의 같으나 70% 이상에서는 완만하게 저하하다가 90% 정도에서는 거의 0에 이르렀다. 또한 중량이 40 g/m²일 때 70%에서 약 0.58 kV이나 그 후 습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떨어졌다. 온도가 30°C, 40°C인 환경에서도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. 중량이 15 g/m²와 20 g/m²인 시료보다 40 g/m²인 시료가 정전기 대전전압이 현격하게 커는데 이는 중량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.

그림 3~5에서 온도가 20~40°C인 경우, 습도가 40%일 때 중량이 15 g/m²와 20 g/m²인 시료의 대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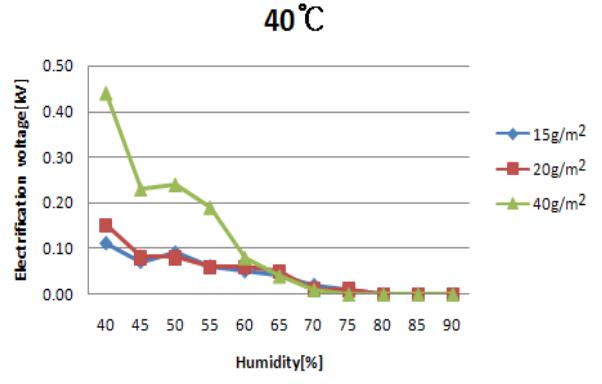


Fig. 5. Electrostatic electrification voltage due to transition of humidity in non-wovens sample of polyester rayon, 40°C.

전압의 크기는 대략 0.15~0.25 kV, 40 g/m²인 시료의 경우는 대략 0.44~0.60 kV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.

그림 3에서 20°C인 경우 습도가 70%까지 15 g/m²와 20 g/m²인 시료의 대전전압의 크기는 0.2 kV 정도로 거의 같은 대전전압을 유지하다가 70% 이상에서는 0.1 kV 정도로 떨어졌으며 40 g/m²인 시료의 경우는 70% 정도까지는 0.58 kV 정도였으나 그 이상에서 급감하여 90%에서 0.1 kV로 떨어졌다.

중량이 40 g/m²인 시료의 경우는 그림 4와 같이 온도 30°C에서는 습도 50%에서 0.32 kV, 55%에서 0.39 kV까지 증가했다가 80% 정도에서 0 kV 정도로 떨어졌다. 그림 5에서와 같이 온도가 40°C에서는 습도 50%에서 0.32 kV, 55%에서 0.39 kV까지 증가했다가 80% 정도에서 0 kV 정도로 떨어졌다.

중량이 15 g/m²와 20 g/m²인 시료의 대전전압의 크기는 그림 4와 그림 5 모두 약 40%에서 0.15 kV 정도로, 30°C에서는 75%에서, 40°C에서는 70%에서 0 kV 정도로 감소했다. 따라서 중량이 무거운 시료가 습도가 높아질수록 대전전압이 높아짐을 확인했으며,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전전압이 중량이 차가 없는 시료에 혼조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온도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.

그림 6~8은 습도 40~90%, 온도 15~40°C의 환경에서 폴리에스터 레이온 합성부직포 중량이 15 g/m², 20 g/m² 및 40 g/m²인 시료에 직류고전압 코로나 방전형으로 10 kV를 인가하여 정전기 대전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다. 그림 8은 습도 70%일 때 중량 15~40 g/m²인 폴리에스터 레이온 합성 부직포 시료와 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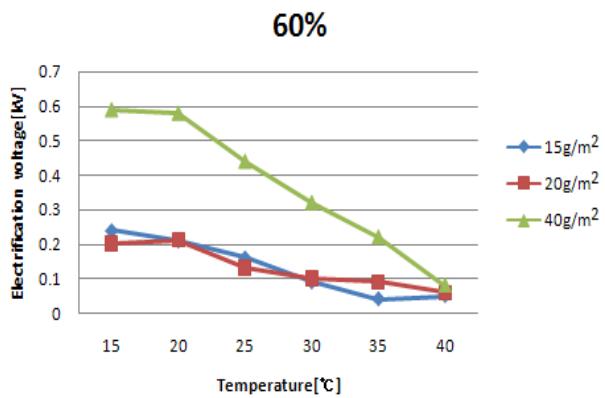


Fig. 6. Electrostatic electrification voltage due to transition of temperature in non-wovens sample of polyester rayon, 60%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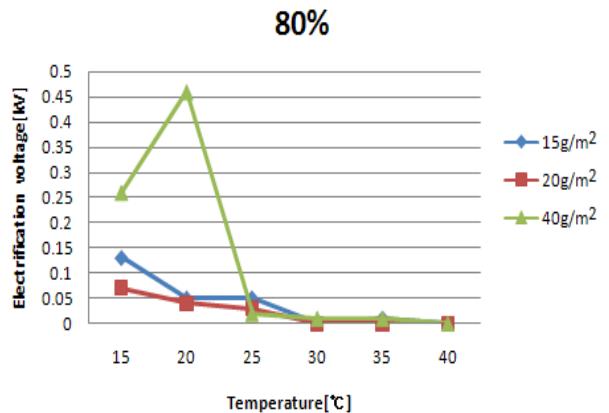


Fig. 8. Electrostatic electrification voltage due to transition of temperature in non-wovens sample of polyester rayon, 80%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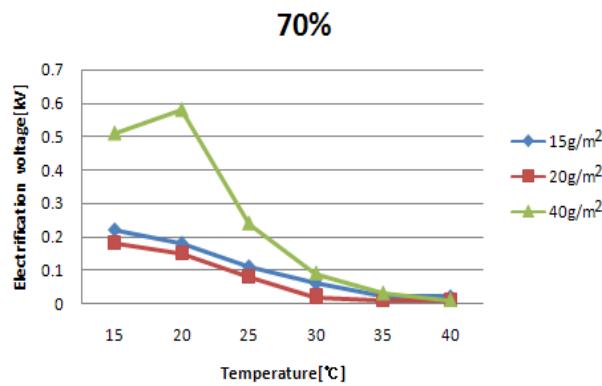


Fig. 7. Electrostatic electrification voltage due to transition of temperature in non-wovens sample of polyester rayon, 70%.

15~40°C의 환경에 의한 정전기 대전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다. 습도가 70%에서 온도가 15°C에서 30°C까지 증가할수록 15 g/m²와 20 g/m²인 시료는 0.22 kV에서 0.2 kV 정도로 서서히 감소하다가 30°C에서 40°C에서는 0.01 kV로 대전전압을 나타내었으며, 두 시료 모두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.

40 g/m²인 시료에서는 15°C일 때 0.51 kV, 20°C일 때 0.58 kV로 상승하다가 30°C까지는 약간 감소하다가 40°C에서는 0.01 kV로 대전함을 확인하였다. 또한 습도 60%, 70%, 80% 그리고 온도 15°C의 경우 온도 올릴 때 습도가 높아질수록 대전전압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40 g/m²인 경우 습도가 60%에서 80%

로 증가할 때 대전전압의 상승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료 제작 때 첨가되는 이물질과 불순물의 첨가와 중량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.

그럼 9~11은 온도 약 30°C, 습도 약 70%, 중량 15 g/m², 20 g/m² 및 40 g/m²인 시료를 측정한 결과를 1/2로 반감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.

시료에 전하를 인가하여 전하의 분포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전원을 차단한다. 이때의 시료의 전위를 10 kV라 하면 t초 후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전하의 감소분만큼 시료 전위가 강하하며 그때의 전위 V[V]는 시료의 누설저항 R_c [Ω]과 정전용량 C [F]에 의해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.

$$V = V_0 e^{-\frac{t}{CR_c}} \quad (1)$$

시료의 전하가 누설되어 감소하고 그 전위 V가 초기의 전위 V_0 의 1/2전압 치로 될 때의 시간t를 반감기라 부른다. 여기서 반감기 τ는 누설저항 R_c [Ω]과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반감기 τ를 측정하면 대전체의 전하이동에 대한 난이도의 추정이 가능하다. 이 때 analyzer에 기록되는 V_0 의 크기는 시료의 누설전하와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공급된 전하가 평형을 이루는 곳에서 결정된다. 일반적으로 대전체의 절연성능이 높을수록 V_0 가 높고, τ가 커진다. 그러므로 중량을 15~40g/m² 까지 증가시켰을 경우 대전전압은 1/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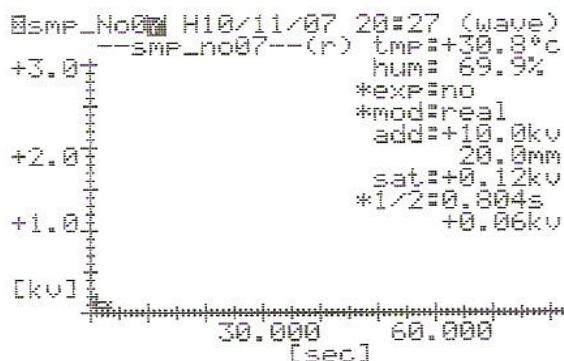


Fig. 9. Relaxation of electrostatic electrification in non-woven sample of polyester rayon, 15 g/m²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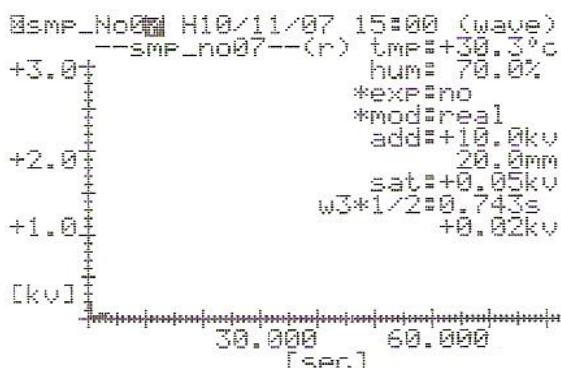


Fig. 10. Relaxation of electrostatic electrification in non-woven sample of polyester rayon, 20 g/m²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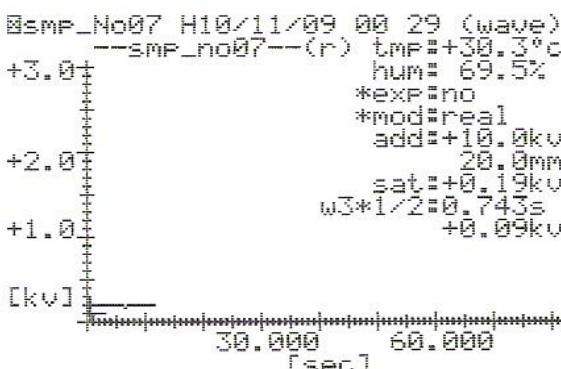


Fig. 11. Relaxation of electrostatic electrification in non-woven sample of polyester rayon, 40 g/m².

로 반감 시 중량이 커질수록 완화시간은 짧아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15 g/m², 30.8°C에서는 0.804 s가 걸렸고 20 g/m²과 40 g/m², 30.3°C에서는 0.743 s가 걸렸다. 이는 습도가 일정할 경우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. 중량에 의한 영향보다는 온도에 따른 영향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. 그림 9~11은 온도가 30°C, 습도 70%인 경우 중량이 15 g/m²에서 40 g/m²으로 증가되었을 때 정전기 대전전압이 1/2로 반감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량이 무거울수록 짧아짐을 확인하였다.

4. 결 론

폴리에스터 레이온 합성 부직포의 정전기 대전 특성을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- (1) 일정 온도에서 정전기 대전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중량이 무거운 부직포에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고, 습도가 70% 이하일 경우 정전기의 감소가 완만하나 70% 이상인 경우에는 정전기의 발생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했다.
- (2) 폴리에스터 레이온 합성 부직포의 경우에는 온도 및 습도가 증가할 경우 정전기의 대전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.
- (3) 온도 약 30°C, 습도 약 70%의 환경에서 중량 15 g/m², 20 g/m² 및 40 g/m²인 시료를 측정한 결과, 1/2로 완화되는 데 걸린 시간은 중량이 커질수록 짧아졌음을 확인했다.

REFERENCES

- [1] S. Lee and S. Kim, *J. KIEEME*, **23**, 48 (2010).
- [2] S. Lee, *J. KIEEME*, **23**, 718 (2010).
- [3] R. G. Renninger, *J. Electrost.*, **28**, 253 (1992).
- [4] D. L. Sin and T. L. Welsher, *J. Electrost.*, **31**, 199 (1993).
- [5] M. C. Jon and T. L. Welsher, *J. Electrost.*, **32**, 43 (1994).
- [6] K. Lee, J. Yoo, J. Hong, S. Lee, Y. Kim, and H. Jeong, *J. KIEEME*, **20**, 25 (2007).
- [7] W. D. Greason, *J. Electrost.*, **28**, 199 (1992).
- [8] W. D. Greason and S. Bulach, *IEEE Trans. Ind. Appl.*, **33**, 286 (1997).
- [9] T. J. Maloney, *J. Electrost.*, **31**, 313 (1993).